

방종현 선생님의 강의에 얽힌 이야기 - 부산 피난 시절의 추억 -

이기문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방종현 선생님을 생각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6·25 전쟁으로 내려갔던 피난지 부산이 떠오르는 합니다. 참으로 암담한 시절이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저로서는 너무나 괴로운 피난살이였습니다. 그 때의 어려움을 어떻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려운 때에 전시연합대학(戰時聯合大學)이 생긴 것은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과 학문을 아주 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충심(衷心)에서 우려한 결정이 아니었던가 합니다. 이 일에 방종현 선생님께서 많은 힘을 쓰셨다는 생각을 저는 가져 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대학의 부학장(副學長)이 되신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전시연합대학을 누구보다도 반가워했습니다. 비록 천막 교실에서나마 전공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1학년 때 교양 과목과 외국어 강의를 주로 들었습니다. 국어학에 관한 것은 이희승 선생님의 「국어학 개설」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국어학 연구에 대한 제 호기심이 한껏 부풀어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2학년이 되자마자 전쟁이 터져서 제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전시연합대학의 개강 날짜가 다가오자 강의 시간에 맞추

어 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어렵사리 얻은 일 자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애를 태우는 것이 보기에 안쓰러웠던지,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것을 눈감아 주겠다는 윗사람의 허락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분을 제 인생의 은인(恩人)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일생을 되돌아 보면 요긴한 고비마다 이와 같은 은인들이 있었음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됩니다.

그해 저는 방중현 선생님과 이승녕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두 강의가 다 국어의 역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국어의 역사를 외궂으로 파고든 것이 그 때에 두 강의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도 조금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방중현 선생님의 강의는, 「계림유사」(雞林類事) 연구였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강의 제목은 「국어학 강독」이었는데 「계림유사」를 택한 것이었습니다. 이 강의는 저에게 역사적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했습니다. 선생님은 「계림유사」의 저자와 편찬 연대, 그리고 지금 볼 수 있는 그 여러 판본(板本)들에 대한 연구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함을 누누이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이니 「설부」(說郛)니 하는 제 귀에 선 중국 책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림유사」의 올바른 해독(解讀)을 위해서는 그때(12세기)의 중국의 한자음(漢字音)을 연구해야 한다며 「광운」(廣韻), 「중원음운」(中原音韻)과 같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운서(韻書)들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강의 내내 저는 어느 아득한 광야에 버려진 미아(迷兒)와 같은 느낌, 어느 신비경(神秘境)을 외로이 헤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로서는 도무지 이를 수 없는 경지에 선생님이 서 계신 것을 느꼈습니다.

부산에서 저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영도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은 강의들 중에서 제 기억에 똑똑히 남아 있는 것은 위의 「계림유사」 강의뿐입니다. 이 강의의 인상(印象)이 얼

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강의의 기억을 더욱 뚜렷하게 한 것이 학기말 리포트였습니다. 「계림유사」에 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저로서는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그때에는 제 주변에 참고할 만한 책이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동래에서 한참 떨어진 마을 농가의 작은 별채에 들어 있던 터라, 책상도 책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산 시내의 한 서점에서 일본 학자 하야유허(河野六郎 Kano Rokurō)의 저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 방언학 시고」(朝鮮方言學試攷 - 銜語考, 1945)였습니다. 이 책이 마침 「계림유사」의 한 항목인 剪刀匣(scissors box)을 주제로 한 연구여서 이 책에 관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후일 일본에 갔을 때 들은 이야기지만, 이 책은 1945년 4월에 서울에서 간행된 탓으로, 해방 뒤 우리나라 서점에서는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일본에서는 보기 어려운 귀중본이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책이 난처했던 저를 살려 준 셈입니다. 저는 그 리포트를 어떻게 썼는지 기억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비판할 만한 능력이 없었으니 그저 독후감(讀後感) 비슷한 것을 썼을 것 같습니다. 초보자들이 으레 그러하듯이 그 책의 내용을 모두 옳은 것으로 보았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리포트를 쓴 뒤, 그 일을 잊을 만했을 때 저는 선생님을 우연히 뵈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그 책에는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 많다는 뜻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짧은 말씀이었지만 제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제 글을 읽으셨고 제가 하는 공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제 마음에 와 닿은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선생님의 이 짙막한 말씀이 제 학문 연구의 지표(指標)가 되었습니다. 앞선 학자들의 연구는 면밀히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외문이 있으면 그것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제(主題)에 대한 연구라도 관련 자료를 처음부터 새로이 모으고 분석하여 독자적인 이론을 구축해야 참다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 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가위'에 쏠리게 되었습니다. 하야(河野)의 연구는, 간단히 요약하면, 「계림유사」의 '割子蓋'(剪刀)와 「훈몽자회」(訓蒙字會)의 'ㄹ애'(剪)와 경상 방언의 '가시개'를 비교함으로써 이 단어의 고형(古形)을 ka-si-gai로 재구하고 '割子蓋'는 바로 이 고형을 표기한 것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훈몽자회」 이전의 문헌에 이 단어의 표기가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아주 쉽게 「두시언해」(杜詩諺解)의 '즈애'를 찾았습니다. 방 선생님의 「고어재료사전」(古語材料辭典)에서였습니다. 부산 피난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 수복 이후에도 저는 중세 어라면 우선 이 책을 펴보았습니다. 아마 이 사전이 없었다면 '즈애'와의 만남은 몇 해를 더 기다려야 했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즈'이라고 종성(終聲)을 쓰고 '애'를 쓴 것이 제게 새로운 문제를 던져 주었습니다. 중세어에서 '불취'(根)의 '불'과 같이 'ㄹ'을 종성으로 쓴 것은 뒷 음절의 '취'가 자음 'ㅎ'으로 시작했기 때문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즈애'의 경우 '애'의 'ㅇ'이 자음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성의 'ㅇ'은 영(zero)이라는 고정 관념을 켤 필요가 있다는 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즈애'의 'ㅇ'에 대한 이런 고민은 학문 연구에 있어서 사고(思考)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뒤 「월인석보」(月印釋譜)에서 동사 어간 '즈-'(剪 자르다)을 발견함으로써 '즈애'의 고형(古形)은 '즈개'였으며 동사 '즈-'에 도구를 나타내는 접미사 '개'가 붙어서 된 말임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즈애'에 관한 탐구는 제 학문의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출발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방종현 선생님의 짧은 한마디 말씀에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방종현 선생님께서는 방언학(方言學) 강의도 들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 강의에서는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를 비롯한 옛 문헌에 나오는 '방언'(方言)의 예들이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방언 수집의 실제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그때의 부산의 분위기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언제나 방언 조사를 할 만큼 안

정된 시대가 올는지 막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강의는 국어 연구에 있어서 방언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저로 하여금 깨닫게 했습니다. 제주도 방언이 매우 특이하다는 사실도, 선생님께서 직접 조사하신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으나 8년 뒤에 이 섬에 제가 가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으로 우리나라 학자들의 방언 연구가 매우 부족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해방 전,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 학자가 방언을 조사하고 연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지방을 여행하며 주민들과 접촉하는 일이 일본 경찰의 엄중한 감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 학자의 방언 연구는 넉넉한 연구비와 경찰의 극진한 보호 속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방언학이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 교수였던 소창진평(小倉進平 Ogura Shinpei)에 의해서 개척된 데는 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말한 하야(河野)의 연구는 소창의 연구를 뒤이은 것이었습니다.

방중현 선생님은 일제 강점기에 방언 연구에 뜻을 두고 이를 실행하고자 애쓴 예외적 존재였습니다. 남한의 몇 곳을 찾아 방언과 속담을 수집했고 멀리 제주도 남쪽의 가파도(加波島)에까지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방언 조사를 한 것은 「조선일보(朝鮮日報)」의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신문사의 문화 사업을 한다는 명목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일본 경찰도 마지못해 조금은 허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방중현 선생님의 생애에서 조선일보사의 존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방응모(方應謨) 사장이 재정난에 허덕이던 조선일보사를 맡은 뒤에 이분의 가까운 친족으로서 방중현 선생님은 이 신문사의 문화 사업을 도맡아, 앞길에 암담한 민족 문화의 여명(餘命)을 살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도 「조선일보」의 폐간으로 끊어지게 되었고 일제 말기에는

뜻있는 몇 분과 함께 서울 근교의 창동(倉洞)에 은거하며 국어사 연구에 몰두하시게 되었습니다. 「고어재료사전」은 이곳에서 옛 문헌을 읽으시며 작성한 어휘 카드를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학년에도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뜻밖에 서거(逝去)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1952년도 저물어갈 무렵(11월 18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 학문의 역사에서 이 조서(早逝)보다 더 비통한 일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해방 뒤에 낸 몇 저서에 대하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임시의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저술을 하실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외마디 괴성을 지르셨다 합니다. 이 생각만 하면 저는 온몸의 뼈마디가 쭈셔움을 느끼곤 합니다.

돌이켜보면, 선생님께서는 하잘것없는 것들이라고 했으나, 그 업적은 어느 하나 국어학의 발전에 초석이 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고어재료사전」이 그렇고 「훈민정음통사」(訓民正音通史, 1948)가 그렇고 잡지와 신문에 실린 논문 하나하나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국어의 역사적 연구를 위하여 수집한 옛 문헌들은 그 규모가 한 학자의 장서(藏書)로는 전무후무(前無後無)한 것이었습니다. 이 장서는 일사문고(一簣文庫)로 남아 후학들의 연구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걸으신 길을 다시 걷고, 하신 일을 이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지난 50년대 말에 제주도 방언 조사를 갔을 때의 제 소원의 하나는 선생님께서 국어학자로는 처음으로 가서 조사하신 가파도에 가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저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마침 태풍이 불어 그 섬에 일주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그곳이 '해옥' (海獄)임을 실감하였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속담대사전」(俗談

大辭典)을 옆에 두고, 속담을 보거나 들었을 때 이 책에 없는 것이면 공책에 적곤 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것이 제 「속담사전」(1962)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책입니다.

선생님의 학문을 조금이라도 뒤따르려는 생각에서 일본에 갈 때마다 우리나라 책을 찾아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우리나라 고서(古書)가 그렇게 많을 줄은 미처 몰랐었습니다. 이 탐사의 과정에 선생님께서 그렇게도 보고 싶어하셨던 「훈몽자회」(訓蒙字會)의 초간본(初刊本)과 개간본(改刊本)으로 추정되는 책들과 만났을 때, 저는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선생님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선생님께서도 이 일을 기뻐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創制)에 관해서 글을 몇 편 썼습니다. 그때마다 선생님께서 쓰신 글들을 다시 읽었고 새삼스럽게 선생님의 훈민정음에 대한 생각의 깊이를 느끼곤 했습니다. 제 훈민정음 연구가 선생님의 마음에 드는 경지에 도달할 수 없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나마 제 명이 다할 때까지 노력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